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연합과 분리**

[창세기 11:1] 온 땅의 구음(口音)[언어이 하나이요 언어들도 하나이었다라.

오늘날 세계에 3,000개 정도의 언어가 있고 그 중에 5천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19개라고 한다.1) 그러나 본래 아담의 자손들과 노아의 자손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과 그들에게서 난 자손들은 ‘동방으로’ 이동했고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 시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중하류의 평지로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평원, 즉 오늘날 이라크의 동부이다. 바벨은 이라크의 알 힐라이다.

[3-4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城)과 대(臺)[탑을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여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시날 평지에 거하며 벽돌을 잘 굽고 역청을 접착제로 사용하여 큰 성과 높은 탑을 만들려 했다. 사람의 지혜는 뛰어났다. 바벨탑 건립은 아마 니므롯이 주도하여 행하였을 것이다. 바벨 남쪽 유프라테스 강 서편 언덕에 흔적이 남아 있는 **빌스 니무롯**이라는 명칭의 일곱 층계로 된 탑이 이 탑의 유적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한다.

노아의 자손들이 성과 탑을 건립하고자 했던 동기는 두 가지이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나 사람이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다(시 115:16).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생각은 실상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겸손히 자신들과 하나님 간의 무한한 차이를 인정하기보다 하나님과 견주려 하였다. 그것은 인

간의 교만을 나타낸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근본적인 큰 죄악이다. 사람은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높이며 사랑해야 한다.

둘째로, 그들은 온 지면에 흠여지지 않으려 하였다. 연합을 추구한 것이다. 그것도 니므롯이 주도하였을 것이다. 불경건과 교만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연합은 폭군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그들의 시도는 전체주의적 사회를 지향하였을 것이다. 전체주의란 개인의 모든 활동이 국가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역사상 독재 국가들에서 볼 수 있었던 생각이다. 그런 연합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일반적으로, 연합은 선하고 좋으며, 분열은 악하고 나쁘지만, 강제적 연합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런 연합 아래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신앙의 자유가 부정된다. 무신론적 전체주의 사회는 무서운 괴물과 같다. 우리는 주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적 세계 통합과 교회 통합으로 전체주의적 국가와 교회가 나타나리라고 예상한다(계 13:7, 12, 16-17).

참된 연합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합이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진리와 의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좋은 것이다. 진리와 거짓, 의와 불의, 선과 악은 섞이기보다는 분리되어야 한다. 불경건과 교만으로 연합하기보다는 차라리 분리된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거기에는 최소한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된 연합은 경건과 의와 진실, 겸손과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5-9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1) The World Book Encyclopedia, x, 64.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인본주의적 연합 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는 그들의 일을 악하다고 판단하셨다. 그는 오늘날도 참된 진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연합운동을 미워하신다. 그는 내려오셔서 그들의 하는 일을 보셨다. 그것은 비유적 표현이다. 또 그는 그들이 언어가 하나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음을 아셨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중단케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다.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헛되게 될 것이다.

[10-26절] 썸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썸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7:11에 홍수가 노아 600세 2월에 시작되었다고 말하므로 썸은 노아가 502세 때에 낳은 아들이라고 보인다. 본문은 썸의 자손에 대해 말한다. 성경 역사는 하나님께서 썸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으로 흘러 내려간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흠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홍수 후 썸의 자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초산 연령이 낮아졌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자손의 기록과 달리, 본문에서는 초산 연령이 전부 35세 이하이며 대부분 30세 전후이다. 둘째로, 수명(壽命)이 점점 줄어들었다. 홍수 전에는 사람이 보통 900세 이상 살았으나, 홍수 후에는 현격히 줄어 데라의 아버지 나홀의 수명은 149세이었다. 노아 시대 대홍수 때 하늘의 대기층에 변화가 일어났고 태양 광선의 많은 유입으로 노화(老化)가 촉진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원문은 창세기 5:32와 같이 “데라가 70세가 된 후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뜻이다. 27절과 29

절에 보면, 하란은 결혼하여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고 그 중에 밀가는 삼촌인 나홀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면, 데라의 세 아들은 아브람, 하란, 나홀 순서일 것이며, 또한 하란과 나홀의 나이 차이도 컸을 것이다. 데라의 연대는 아담 후 1878-2083년경이며, 아브라함의 연대는 만일 데라가 그를 70세에 낳았다면 아담 후 1948-2123년경이다.

[27-30절]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래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와 그 아들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의 나시리아에서 서쪽으로 10여km 떨어진 텔 엘-무키야르로 추정된다. 갈대아 우르는 옛 시대에 문명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에 중산층의 집은 열 개 내지 스무 개의 방이 있는 이층집이었고, 학교에서 학생들은 읽기와 쓰기와 산수를 공부하였고 곱셈과 나눗셈, 심지어 제곱근과 세 제곱근도 공부하였다.<sup>2)</sup>

데라의 아들 하란은 그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데라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불행한 일을 경험해야 했다. 또 그의 아들 아브람(후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꿈)은 아내가 자녀를 잉태치 못했다. 그것도 아버지 데라에게 큰 근심거리이었을 것이다.

[31-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sup>3)</sup>

데라와 그 일행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다. 창세기 15:7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로라”고 말씀하셨다. 느헤미야 9:7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이마 아브람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고(행

2) J. P. Free, *Archaeology and Bible History*, pp. 49-50.

3) 데라가 70세에 아브람을 낳았다면(창 11:26), 75세에 하란을 떠난(창 12:4) 아브람은 데라가 145세에 즉 그가 죽기 전에 하란을 떠난 것이다.

7:2)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를 설득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떤 이유인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했다. 그가 중도에 주저앉고 만 것은 그의 연약 때문이었을 것이다.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우상숭배적 환경이었다(수 24:2; 창 31:19; 35:2-4).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잘못된 연합 활동을 반대해야 한다. 노아의 자손들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것은 잘못된 연합 활동, 인본주의적 연합 활동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교만에서 나온 생각이며 활동이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인간의 교만을 미워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에서 나온 바벨탑 쌓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 일을 중단시키셨다.

인본주의에 입각한 현대 과학과 문명은 바벨탑 쌓는 일이다. 인류는 또 다시 인간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람들은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같이 생각한다. 인간의 삶 속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시실 곳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런 삶에는 인간의 목적도, 죄 문제나 죽음 문제의 해결도 없다. 교만한 세상에는 허무함만이 가득하다.

성경의 예언대로, 말세를 당해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연합을 추구하고 있다. 교회들은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고 변질된 천주교회를 용납하고 심지어 이방종교들도 포용하려 한다. 보수적인 교회들조차도 이런 넓어진 교회들을 분별하고 배격하지 않고 교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은 성경에 밝히 계시된 교제의 교훈을 어기는 잘못된 연합이다. 우리는 그런 연합을 반대하고 그런 일에 참여치 말아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거룩한 분리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셈의 자손을 구별하셨다. 또 그는 셈의 자손들 중에서 데라를 구별하셨고 또 데라의 아들 아브람(후에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함)을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데라와 그 아들 아브람 부부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다. 그것은 우상숭배의 환경으로부터의 분리이었다. 우리는 갈대아 우르 같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구원 운동은 분리 운동이다. 구원은 죄로부터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또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불신자들과의 분리를 밝히 가르치고(고후 6:14-17), 이단들과의 분리를 밝히 가르치고(딤후 3:10; 요이 7-11), 또 바른 교훈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자들과의 분리를 밝히 가르친다(롬 16:17; 살후 3:6, 14). 신약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밝히 가르치지만, 동시에 불신자들, 이단자들, 바른 교훈을 버리거나 불순종하는 자들과

교제를 끊으라고도 밝히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거룩한 분리를 실천해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안식일, 무교절, 맥추절**

율법에 하나님의 절기들에 대한 규정은 주로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28-29장, 신명기 15-16장에 있다. 구약시대에는 본장에 나와 있는 일곱 가지 절기들 외에, 월삭(민 28장), 안식년(레 25장, 신 15장), 희년(레 25장) 등 모두 열 가지의 절기들이 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와 절기는 이러하니라.

‘성회’라는 원어는 ‘거룩한 집회’라는 뜻으로, 안식일과 절기들에 모이는 종교적 집회를 가리킨다. 절기는 성회의 날이었다. 또 ‘절기’라는 원어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3절] 옛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와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여호와와 안식일’로서 모든 세상 일을 중단하고 쉬는 날이며 ‘성회’ 곧 종교적 집회로 모이는 날이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출 20:11) 하나님의 영속적 언약의 표이었고(출 31:12, 16-17), 그 날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다(출 31:14-15).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영원한 안식을 예표한다.

[4-8절]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와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와 유월절이요 이 달 15일은 여호와와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火祭)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연중 3대 절기인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은 ‘축제(카그)(feast)로 불리었다.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며,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간이다. 구약시대에 하루는 해가 진 저녁부터 다음날 해가 진 저녁까지이므로, 유월절이 끝나면 무교절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의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고 그 두 절기는 동일시되기도 한다. 또 무교절의 7일 중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지켰다. 이와 같이, 구약의 연중 여섯 절기들 중에는 일곱 번의 안식일들이 있었다(무교절 2

번, 맥추절 1번, 나팔절 1번, 속죄일 1번, 초막절 2번).

유월절(逾越節)은 ‘넘어간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 재앙에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 장자를 죽였으나 이스라엘 집은 천사가 넘어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유월절은 애굽 왕 바로의 권세로부터 기적적으로 놓여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뜻이 있었다. 유월절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전 5:7).

[9-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흙 없는 숫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2(약 4.4리터)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유화의 향기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힌 4분 1(약 1리터)을 쏟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무교절 기간은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다. 보리 초실절에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에 드려야 했다. ‘안식일 이튿날’은 바리새파에 의하면 1월 16일을 가리킨다고 하고, 사두개파에 의하면 주간 안식일 이튿날을 가리킨다고 한다.<sup>4)</sup> 보리 초실절은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뜻이 있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였다.

[15-21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약 4.4리터)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흙 없는 어린양 일곱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숫양 둘을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유화(有和), 진노를 누그러뜨림)의 향기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된 어린 숫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 . . .

맥추절은 무교절 기간의 보리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맥추절의 ‘맥’(麥)은 소맥 즉 밀을 가리킨다. 그때에는 밀 추수를 한다. 출애굽기 34:22에는 ‘맥추 곧 밀의 초실절’이라고 불렀다. 팔레스틴의 곡식 추수는 봄에 보리 추수로 시작하여 늦봄 혹은 초여름에 밀 추수로 마친다. 가을에는 포도주와 기름과 열매들을 거두어 저장한다. 맥추절은 추수감사의 뜻이 있고, 영적으로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영혼 구원의 열매들을 예표한다. 맥추절 곧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고(행 2:1-4)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전도사역이 시작되었다. 그 날 베드로의 설교로 3천명의 영혼들이 구원받았다(행 2:41). 성경은 신약 성도들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부른다(롬 8:23; 약 1:18). 그 날, 누룩 넣어 구운 떡 두 개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죄성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 아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상징한 것일 것이다.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 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신 법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자. 유월절 어린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였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얻었다.

둘째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우리는 더욱 분발하여 성화(聖化)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맥추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누룩 넣은 떡과 같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악성이 남아 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중생시키셨다. 이제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구약시대에 안식일과 절기들은 성회로 모이는 목적이 있었다. 성회는 공적인 모임, 즉 공예배이다. 우리는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교훈으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공예배를 귀히 여기며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다. 그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 그에게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주안에서의 즐거움과 존귀함과 필요한 것들의 공급함을 주실 것이다.

[책안내] ● 김효성, **역대기 강해**, 제2판, 256쪽, 2,500원.  
● 김효성, **열왕기 강해**, 제2판, 217쪽, 2,000원.  
● 김효성, **사무엘서 강해**, 제2판, 233쪽, 2,000원.

4) G. F. Oehl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p. 347.